



Pieona-still blooming, 300x300x800mm, Stainless steel, 2025

Pieona : into bloom

배승수 Bae Seung Su

NEO Art 네오아트센터

26.01.14 ~ 25.03.08 N2관

배승수

Bae Seung Su



2020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조소전공 석사 졸업

2015 충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및 단체전 /

2023 SomeTHing Vol.2 (IFC SEOUL, 서울)

2023 SomeTHing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2022 The Shining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2022 unknown Vol.2 (아트마 갤러리, 서울)

2021 unknown (숲속갤러리, 청주)

2018 cloth : ER (숲속갤러리, 청주)

2017 한국기초초형학회 서울국제기획초대개인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

이전 전시에서 나는 생각의 잔해와 그 흔적을 따라가며 비워진 형태 자체를 작업으로 남겼다.

무엇이든 담길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매듭지어 묶어 버렸다.

결국 방향을 정하지 못한 내용은 드러나지 못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Piona : into bloom〉에서는 그 형태를 더 이상 비워두지 않는다.

여전히 묶여 있지만 그 안에 꽃을 담았다.

리본은 생각을 정리하고 흩어진 것을 모으는 장치이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담기지 않았던 내용은 꽃을 통해 비로소 모습을 갖는다.

꽃은 새롭게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라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생각과 가능성이 도달한 지점이다.

잠식되었던 내용은 꽃으로 전환되고 더 이상 비워진 채 머물지 않는다.

이 변화는 묶여 있던 형태 안에서 내용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담지 않음으로 유지되던 생각에서 벗어나 묶인 채 존재하던 가능성은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타난다.

리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그 안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다.

”

〈Piona : into bloom〉은 그 순간을 보여준다.

가장 단단한 쇠로 빛은 가장 부드러운 '리본'의 위로

예술은 종종 물성(物性)을 배반하는 지점에서 감동을 잉태한다. 오는 1월 14일, 네오아트센터 2관에서 막을 올리는 조각가 배승수의 신년 기획 초대전은 그 배반의 미학이 정점에 달한 순간을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하늘거리는 리본과 금방이라도 향기가 날 듯한 꽃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관람객이 그 유려한 주름에 현혹되어 손을 뻗는 순간,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고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이다.

이 극적인 반전은 기계가 아닌, 작가가 온몸으로 감내한 수만 번의 망치질과 용접, 그리고 연마라는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 전시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경이로움'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한 청년 작가의 치열한 성장통,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2021년 11월, 청주 숲속갤러리에서 열린 배승수의 개인전을 기억한다.

당시 갓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 작가는 자신의 노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작품을 "이유 없는

고철"이라 자책하며, 내용을 채우기보다는 '포장'이라는 껍데기에 천착했었다.

당시 전시된 'Unknown' 시리즈는 리본을 예쁘게 묶어두었지만, 그 안은 텅 비워둔 '침묵의 형상'이었다.

필자와의 인연은 그해 겨울,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던 갤러리를 우연히 방문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화려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은빛 매듭 작품 한 점을 마주했고,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

전시가 끝나고 작품이 사무실에 설치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매일 접하는 작품 속 리본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작가가 언젠가 터트릴 작가의 뜨거운 열정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2026년 새해, 네오아트센터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신작 'Piona: into bloom' 시리즈에서 작가는 마침내 그 단단한 매듭을 풀었다. "더 이상 형태를 비워두지 않는다"는 그의 선언처럼, 구겨진 포장의 틈새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올랐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캔버스 위에는 골드, 핑크, 블루의 생명력이 넘실댄다.
2021년 우리가 소장했던 그 '매듭'이 긴 겨울을 지나 비로소 화려한 '꽃'으로 만개한 것이다.

작가는 **"리본은 생각을 정리하고 흩어진 것을 모으는 장치"**라고 말한다.
그의 조각은 혼란스러웠던 청춘의 파편들을 모아 단단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2021년의 'Unknown'은 2026년의 'Piona'가 되어 우리 앞에 섰다.
강철을 두드려 꽃을 피우는 이 젊은 조각가의 땀방울은, 보는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내면에도 아직 풀지 못한,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피어날 단단한 꽃씨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차가운 겨울의 한복판, 네오아트센터에서 배송수가 피워낸 '강철의 봄'을 마주하길 권한다.
그곳에 작가의 땀방울, 그리고 5년 전 작가의 열정이 빚어낸
가장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선물 같은 오늘

900x600x1400mm,
Stainless steel,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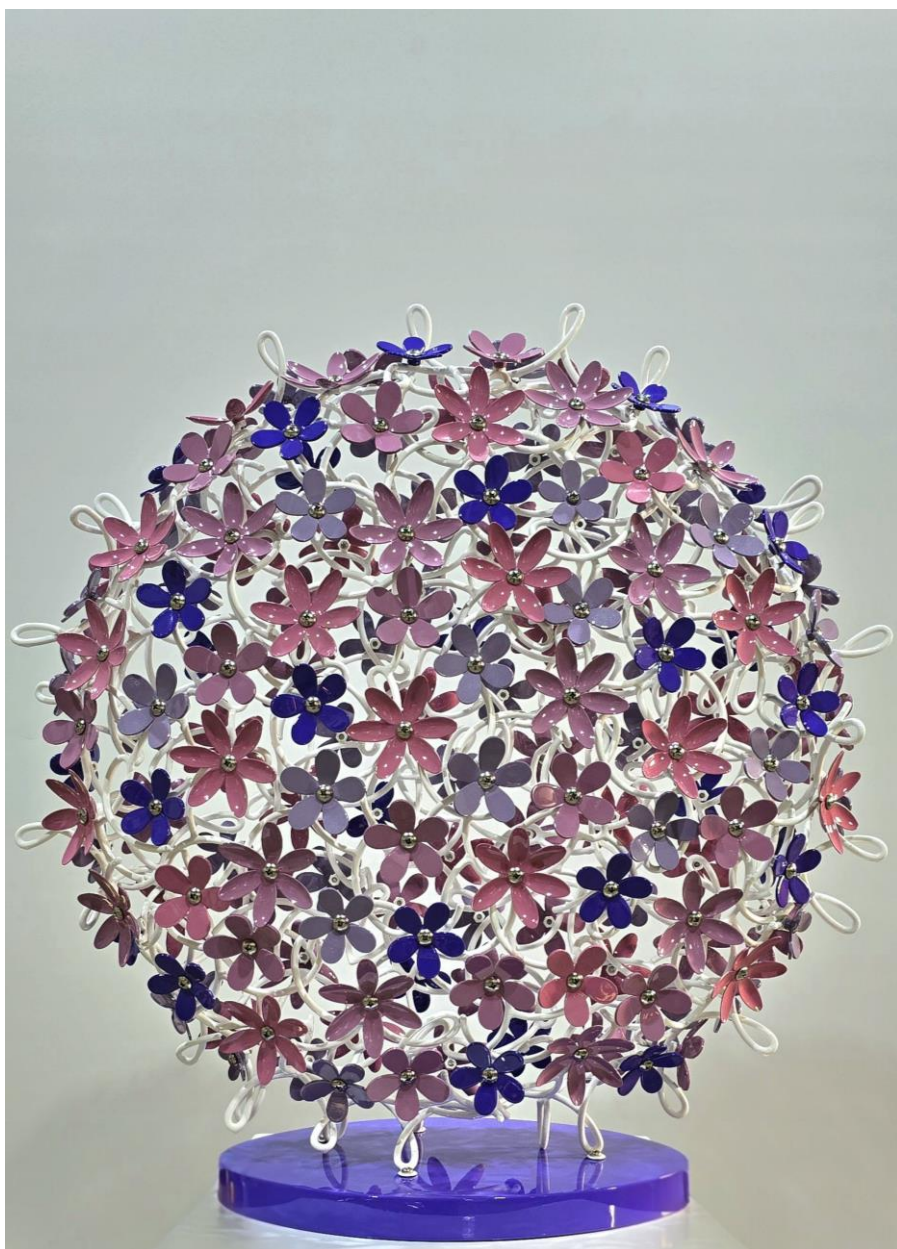
Piona in bloom

380x350x900mm,
Stainless steel, 2025



Piona in bloom

400x250x600mm,
Stainless steel, 2025



Piona in bloom

400x250x700mm,
Stainless steel, 2025



Piona in bloom

320x260x700mm,
Stainless steel, 2025



Piona in bloom

340x250x900mm,
Stainless steel, 2025



Piona in bloom

500x200x780mm,
Stainless steel, 2025



Piona in bloom

300x230x900mm,
Stainless steel, 2025

Piona : into bloom

배승수 Bae Seung Su